

사회적 지지와 자기정당성이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에 미치는 영향*

김 한 규**
허 용 훈***

국문요약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는 바, 먼저 경찰관들이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둘째로, 시민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와 경찰관의 자기정당성이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자기정당성이 사회적 지지와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로, 상기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관의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순찰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하여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영향요인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제어: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사회적지지, 자기정당성, 경찰정당성, 지역사회경찰활동, 지역경찰

I. 서론

최근에 들어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가 위축되고 경제적 위기가 가중됨에 따라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을 비롯하여 불법금융사기, 온라인 사기 등의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더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범죄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아무리 유능한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이 범죄신고를 하지 않거나 범죄예방을 위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범죄예방 및 퇴치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찰에 대한 시민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경찰에 대한 시민협조의 영향요인으로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경찰에 대한 시민신뢰이다. 경

* 본 논문은 2022년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 제1저자

*** 교신저자

찰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경찰에 대한 시민협조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에 대한 신뢰는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허용훈·문유석, 2014:144). 경찰신뢰는 경찰이 시민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 경찰이 시민과의 상호작용과정에 있어서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민주적 경찰(Democratic policing), 시민을 위한 서비스 경찰, 시민과 협력하고 봉사하는 경찰로서의 시민지향적 경찰활동(Citizen-oriented policing)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경찰에 대한 신뢰는 제고되고 경찰 위상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찰은 향후 경찰신뢰를 회복하고 경찰의 위상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 시민지향적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경찰이 시민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얼마나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경찰이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경찰관의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은 아직까지 이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고 직접적인 선행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찰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찰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하나는 경찰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Kang and Nalla, 2011; Janathan-Zamir and Harpaz, 2018). 다른 하나는 경찰관 자신이 담당업무에 대한 사명감이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Tyler, 2015; Bradford & Quinton, 2014; Tankebe and Mdsko, 2015).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경찰관의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의 인과적 메카니즘(mechanism)으로서 외부적 측면인 경찰에 대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와, 내부적 측면인 경찰관의 자기정당성(self-legitimacy)에 대한 인식을 중요변수로 파악하고 이들 변수들을 중심으로 세 변수들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크게 다음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는 바, 먼저 경찰관들이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경찰관의 배경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로, 사회적 지지와 자기정당성이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와 어떠한 인과적 관계가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자기정당성이 경찰에 대한 시민의 사회적 지지와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로, 상기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관의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상기의 목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순찰지구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하여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의 영향요인들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II.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의 이론적배경

1. 시민지향적 경찰활동(Citizen-Oriented Policing)의 개념 및 중요성

지역경찰이 범죄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서는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은 필수적이다. 경찰 혼자만의 활동으로는 경찰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경찰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 본연의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의 경찰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에 대한 시민의 협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경찰에 대하여 협조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야 한다. 시민의 경찰협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으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경찰에 대한 신뢰이다. 시민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를 가지므로써 경찰에 대하여 협조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생기기 때문이다.

경찰신뢰 영향 요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찰정당성(police legitimacy)이다. 경찰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때 시민들은 경찰을 신뢰하고 협조를 한다. 그러므로 시민들로 하여금 경찰활동에 대한 협조, 자발적인 법준수 및 경찰신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경찰활동의 정당성이 필수적이다.

경찰이 시민으로부터 경찰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경찰이 공정하게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시민을 위하여 봉사·협력하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 인권을 존중하고, 주권자인 시민을 위한 민주적인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을 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의 중요성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개념은 본 연구가 처음 사용하는 개념이라 지금까지 이에 대한 개념정립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다.¹⁾ 먼저 시민지향적 경찰활동(Citizen-Oriented Policing)의 개념은 어의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어의적 관점이란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이라는 복합어의 단어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이라는 개념은 '시민지향적'이라는 단어와, '경찰활동'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므로 이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전체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먼저 시민지향적이란 단어에서, 시민이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자가 평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

1) 박경래(2006)는 일선경찰의 시민지향성 개념구성과 영향요인 분석 연구에서 시민지향성을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의 개념과는 그 내용이 다르다.

는 사회구성원을 의미한다. 또한 지향(志向)이란 ‘그 방향이나 그쪽으로 쏠리는 의지’ 또는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네이버, 국어사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이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을 지향하는’, ‘시민을 향한’ 경찰활동으로서 ‘시민을 위한’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은 모든 경찰활동의 초점이 시민지향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2.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의 특징 및 차원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은 경찰권력 행사방법의 적절성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경찰이 경찰활동 수행 중 접촉하게 되는 시민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가와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은 경찰과 시민 간의 접촉(public encounter)이나 법집행 과정에서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절차적 정의에 입각하여 경찰활동(procedural justice policing)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은 첫째로 지역경찰활동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과의 협력을 주요한 특징으로 삼는다. 경찰과 시민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치안협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이 방법활동을 위한 시민이나 주민단체의 노력이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치안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은 불가능하다. 경찰은 법집행을 위해 물리적 힘을 행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기관에 비해 권위적이며 폐쇄적인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시민이나 주민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경찰의 개방성은 경찰의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의 주요한 차원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은 경찰이 절차적 정의에 입각하여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경찰이 민주적 경찰로서 경찰대상자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Tyler(2015)는 절차적 정의를 크게 경찰의사결정의 수준(quality of decision making)과 경찰대상자에 대한 대응수준(quality of interpersonal treatment)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경찰 의사결정의 수준은 의사결정을 할 때 사실에 근거하여 경찰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는가 하는 경찰처분 결정의 공정성 정도를 의미하고, 경찰대상자에 대한 대응수준은 경찰 대응성(responsiveness)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찰이 시민을 주권자로 인식하여 시민인권을 존중하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해당사항에 대하여 친절하게 설명하며 공정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김가은외, 2020: 234)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의 개념을 정의해 보면, ‘방법활동이나 법집행 활동에 있어서 경찰의 개방성을 확대함으로써 협력치안을 구축하고, 절차적 정의에 입각한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민주적인 경찰활동(democratic policing)’을 의미한다.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의 개념을 이렇게 규정한다면, 시민지향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ary policing)과는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사법지원국(Bureau of Justice Assistance, 1994:13)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성공은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상호호혜적인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중요한 요소로서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파트너십(partnership)

과, 문제해결(problem-solving)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허용훈, 2003: 8에서 재인용).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특징을 이렇게 본다면, 시민지향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내용이 일부 중복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의 개념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과 시민과의 파트너십 이외에도 민주적 경찰활동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적 정의에 입각한 경찰활동(procedural justice policing)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사용하고 있는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의 개념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철학과 이념을 지향하면서도 민주적 경찰활동의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회적 지지와 자기정당성 및 시민지향적 경찰활동과의 이론적 관계

1) 사회적 지지와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와의 관계

지역경찰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민의 사회적 지지는 경찰의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수행을 위하여 중요하다.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는 경찰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준다. 결과적으로 경찰관들은 시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치안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을 위한 동기부여가 강화된다(허용훈·문유석, 2014:146-147).

반면에 시민들이 경찰을 신뢰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은 범죄를 목격하고서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불신은 경찰관의 업무수행상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쳐 경찰관 역시 시민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임창호, 2019: 383). 그러므로 주민이 경찰을 신뢰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경찰관의 인식은 시민지향적 경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정립한 개념이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시민의 사회적 지지와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없으나 관련되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지지가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윤현석(2017)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직무열정과의 관계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직무열정과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조우봉·김종범(2021) 역시 지방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Jackson & Wade(2005: 53)는 관할구역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경찰은 시민들과 보다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있다(Pino, 2001: 202). Chen Fei-Lin et al.(2012:896) 따르면, 시민의 경찰신뢰 정도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은 경찰활동 지향성(orientation)에 영향을 미치며, 시민에 대하여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Kang and Nalla(2011)는 시민이 경찰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경찰관은 민주적인 경찰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Janathan-Zamir

and Harpaz(2018)은 시민의 경찰신뢰에 대한 경찰관의 긍정적 인식이 시민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경찰이 절차적 정의에 입각한 경찰활동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경찰관에 대한 시민의 지지와 신뢰는 경찰활동에 대한 경찰관의 태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찰권위에 대한 불신은 경찰이 시민을 대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Hacin, R, & Mesko, Gorazd, 2022:695에서 재인용).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본다면 경찰에 대한 시민의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인식할 수록 시민지향적인 경찰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2) 자기정당성과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와의 관계

경찰정당성(Police Legitimacy)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와 미국 및 영국 등 외국 경찰학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Bottoms and Tankebe, 2013; Tankebe, 2019; Craen, Maarten Van, and Skongan, Wesley G., 2017; Hacin, R, & Mesko, Gorazd, 2022). 우리나라도 외국의 경찰정당성 이론을 가져와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등 경찰정당성에 관한 연구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일부 수행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영섭, 2017; 임창호, 2020; 장재성·최낙범, 2021).

그러나 국내·외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경찰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찰정당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경찰관의 자기정당성(self-legitimacy)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Bottoms and Tankebe, 2013; Chen Fei-Lin et al., 2021:896에서 재인용). 현재 외국의 경찰 자기정당성에 관한 연구는 크게 보면 '경찰관의 자기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요인들의 역할', '경찰관의 자기정당성이 행태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찰관의 자기정당성이 친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Hacin, R, & Mesko, Gorazd, 2022:694).

경찰관의 자기정당성은 사회적으로나 규범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기정당성이란 권력을 가질 개인적 자격(individual entitlement to power)에 대한 권력소유자의 인식이다, 즉, 자신의 권력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자기인식이다(Bottoms and Tankebe, 2013; Hacin, R, & Mesko, Gorazd, 2022:694에서 재인용). 경찰관의 자기정당성은 경찰관으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활동이 정당한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찰관의 자기정당성은 자신의 경찰활동을 인도하는 도덕적, 행태적, 평가적인 프레임워크(framework)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이 시민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보이느냐는 경찰관 개인의 퍼스널리티(personality)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연구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는 경찰관의 자기정당성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Cubas et al., 2021). 경찰관의 자기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론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Bradford & Quinton(2014:1031)은 조직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 사회적 지지(public support), 시민협조(public cooperation), 경찰관의 부정주의(paternalism)²⁾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

히 경찰관이 조직에 의하여 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조직과 일체감(identification)을 가지게 되고, 이것은 조직목표의 내면화를 가져오고, 조직의 권력과 나의 권력을 동일시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에 대하여 정당한 소유자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정당성은 경찰조직과의 일체감과, 조직가치의 내재화에서 나오게 된다. 경찰구성원으로서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은 자기정당성 인식이 강하고, 이것은 경찰활동에 대한 그들의 태도, 아마 '길거리 위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Bradford & Quinton, 2014: 1028). 그러므로 자기정당성이 강한 경찰관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강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소명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경찰활동 중에 접촉하는 대상 시민에 대하여 시민지향적인 행동 및 태도를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3) 사회적 지지와 자기정당성과의 관계

전술한 바와 같이 경찰관의 자기정당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특히 시민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경찰관의 자기정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이다(허용훈·문유석, 2018:49).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지역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관할구역의 주민이나 주민단체 등에 의한 지지나 협조 등과 같이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유·무형의 긍정적 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이 경찰을 신뢰한다든지, 치안활동상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거나, 경찰의 법집행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경찰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지역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찰이 시민으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받을수록 경찰은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사기가 진작되고 시민에 대한 책임감이나 봉사동기가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허용훈·문유석, 2018: 51). 특히 시민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경찰관의 자기정당성(self-legitimacy)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지지와 경찰의 자기 정당성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Bradford & Quinton(2014:1031)은 경찰이 시민들의 사회적 지지 및 협조를 얻고 있다고 믿을 때, 자기정당성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민주적 경찰활동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경험적인 결과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Tankebe와 Meško(2015) 역시 시민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경찰관의 자기정당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Hacin, R. & Mesko, Gorazd, 2022:695에서 재인용). 이것은 경찰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경찰관의 자기정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경찰관의 父情主義의 사고방식은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유지에 필수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의미한다.

Ⅲ. 연구설계

1. 분석 틀 및 가설의 설정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경찰관이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에 시민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와 경찰관의 자기정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자기정당성 및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틀을 구축하였다(그림 2).

본 연구가 상기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가? 특히 새로운 개념으로서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의 측정모형은 적합한가? 둘째, 경찰관의 배경적 변수에 따라 시민지향적 경찰활동태도는 상이한가? 셋째, 사회적 지지는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자기정당성은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사회적 지지와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정당성은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가? 등이다. 본 연구의 검증대상 가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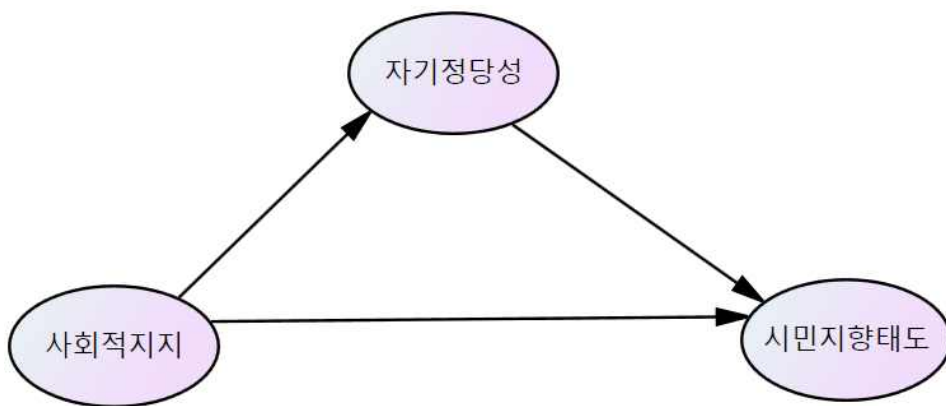
가설1: 사회적 지지는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사회적 지지는 자기정당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자기정당성은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자기정당성은 사회적 지지와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림 2〉 분석 틀



2. 조사설계 및 변수측정

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지역경찰의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의 인과적 분석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순찰지구대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부산지방경찰청 관계 경찰관의 협조를 얻어서 사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조사는 2022년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17일간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네이버 오피스를 활용하여 작성하였고, 설문조사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모바일용 설문지를 배포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경찰관은 총 372명이다.

표본추출은 응답자의 배경적 변수별로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가 달리 나타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학력, 근속연수, 계급, 관할구역 별로 표본이 골고루 추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주택가·아파트 등 주거지역, 유흥가 및 상가지역, 영세민 주거지역, 공장지대, 농·어촌지역 등으로 나누어 순찰지구대를 선정하였다. 순찰지구대 별로는 계급별로 골고루 표본이 추출될 수 있도록 순경, 경장, 경사, 경위 이상의 네 가지 계급으로 나누어 표본을 임의 추출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모바일 설문조사의 특성상 100%이며 총 372부를 통계처리에 사용하였다. 통계분석방법은 신뢰도분석, 분산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및 경로분석 등을 활용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dow 27 program 및 Amos 29을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n	%	구분		n	%
성별	남자	321	86.3	학력	고졸	101	27.2
	여자	51	13.7		전문대졸	38	10.2
					대졸	209	56.2
	합계	372	100.0		대학원졸	24	6.5
합계					372	100.0	
연령	20세~30세	34	9.1	근속연수	5년미만	59	15.9
	30세~40세	106	28.5		5년~10년	70	18.8
					10년~15년	43	11.6
	40세~50세	87	23.4		15년~20년	34	9.1
	50세 이상	145	39.0		20년 이상	166	44.6
				합계	372	100.0	
계급	순경	47	12.6	관할구역	일반주택가 및 아파트	194	52.2
	경장	50	13.4		상가밀집 및 유흥가	88	23.7
					공장지대	5	1.3
	경사	56	15.1		영세민주거	33	8.9
					농어촌지대	3	.8
	경위 이상	219	58.9		기타	49	13.2
					합계	372	100.0

2) 변수의 측정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는 지역경찰의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고, 태도에 대한 구조적 인과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영향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 자기정당성의 두 가지 변수를 독립변수로 제시하였다.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는 크게 시민과의 협력태도, 존중 및 응대태도, 의사결정의 공정성 3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시민과의 협력은 4문항, 존중 및 응대는 4문항, 의사결정의 공정성은 3 문항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는 3문항, 자기정당성은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2).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문항은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관의 배경적 변수는 성별, 연령, 계급, 학력, 총근속연수 및 관할구역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구성은 경찰관의 배경적 변수 이외에는 리커트타입(Likert Type)의 5점 척도로 모두 구성하였다. 문항간의 신뢰도 측정을 위한 신뢰도계수 값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

IV.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 및 구조적 인과관계 분석

1. 분석결과

1)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의 평균분석

〈표 2〉 주요 변수의 평균분석

요인	변수	측정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Cronbach's α	
시민지향적 경찰 활동 (3.747)	시민과의 협력 (3.606)	x1	경찰은 범죄예방활동을 위하여 관내 주민 단체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3.80	1.082	-.706	-.069	.904
		x3	경찰자원봉사자들은 지역경찰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3.47	1.075	-.401	-.363	
		x4	방범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3.70	1.020	-.594	-.057	
		x5	경찰협력단체(자율방범대, 청년회 등)들은 방범활동에 있어서 중요하다.	3.45	1.096	-.399	-.440	
	존중 및 응대 (3.529)	x8r	민원인이 불평하는 것을 들어 주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	3.87	.870	-.788	.732	.733
		x9r	경찰업무의 성격상 시민들을 항상 존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91	1.129	.283	-.838	
		x10r	법규를 어긴 사람은 존중해서 대우해 줄 필요가 없다.*	3.67	.994	-.633	.164	
		x14r	경찰업무의 성격상 법 적용에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이 어렵다.*	3.66	.951	-.715	.285	

의사결정 의 공정성 (4.228)	x6	나는 사건·사고를 처리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잘 청취하는 편이다.	4.22	.620	-.256	-.246	.821
	x11	나는 사건·사고처리 과정에서 당사자 권리에 대하여 충분한 고지를 해 주는 편이다.	4.29	.632	-.319	-.671	
	x13	나는 단속·검문 시 내용 및 절차 등을 당사자에게 잘 설명하는 편이다.	4.17	.608	-.104	-.427	
사회적 지지 (3.016)	x24	관할구역 주민들은 경찰을 존경하는 편이다.	2.86	.954	.026	-.493	.838
	x25	관할구역 주민들은 치안활동상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편이다.	3.30	.863	-.269	-.212	
	x26	관할구역 주민들은 경찰의 법집행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편이다.	2.89	.894	-.078	-.372	
자기정당성 (3.638)	x17	나는 경찰관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권한이 정당하다고 확신한다.	3.77	.960	-.578	-.010	.660
	x18	경찰관으로서, 나는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3.72	.878	-.277	-.146	
	x19	내 명령이 합법적인 한, 시민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	3.51	.910	-.497	.289	
	x20	나는 어떤 상황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내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3.55	.847	-.344	-.006	

주) *문항은 역코딩(reverse coding)으로 처리한 문항임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평균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개념의 세 가지 하위차원 중에서는 의사결정 공정성(4.228)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시민과의 협력의 중요성(3.606), 시민에 대한 존중 및 응대(3.52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경찰은 시민과의 상호작용이나 경찰처분에 있어서 중립성 내지는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시민에 대한 존중 및 응대는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해당 문항 중에서도 '경찰업무의 성격상 시민들을 항상 존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문항은 평균값이 2.9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권존중경찰, 봉사경찰, 민주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여망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지금의 상황에서 볼 때,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경찰과 시민과의 접촉에 있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시민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은 평균값이 3.0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관할구역 주민들은 경찰을 존경하는 편이다.'는 평균보다 낮은 2.86에 불과하다. 또 '관할구역 주민들은 경찰의 법집행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편이다.'도 2.89로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순찰지구대 및 파출소의 경찰관들이 관할구역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의 시민에 대한 신뢰 및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과 시민간의 관계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정당성은 평균값이 3.63으로 평균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내 명령이 합법적인 한, 시민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는데 대

해서는 평균값이 3.51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내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문항은 3.55에 그치고 있다. 이는 경찰관들이 자기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매우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예방 및 퇴치를 위하여 적극적 경찰활동(proactive policing)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18:허용훈·문유석, 2021).

2)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에 대한 분산분석

〈표 3〉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에 대한 분산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연령	20세~30세	3.57	.488	6.302	.000***
	30세~40세	3.64	.564		
	40세~50세	3.71	.565		
	50세 이상	3.89	.524		
계급	순경	3.65	.403	6.015	.001**
	경장	3.50	.554		
	경사	3.70	.559		
	경위 이상	3.84	.561		
학력	고졸	3.70	.552	.595	.619
	전문대졸	3.82	.606		
	대학교졸	3.75	.533		
	대학원졸	3.83	.661		
근속연수	5년 미만	3.61	.390	3.466	.009**
	5년~10년	3.62	.571		
	10년~15년	3.74	.637		
	15년~20년	3.73	.598		
	20년 이상	3.85	.547		
관할구역	일반주택 및 아파트	3.75	.560	1.120	.349
	상가밀집 및 유흥가	3.73	.566		
	공장지대	4.11	.461		
	영세민주거지대	3.73	.565		
	농어촌지대	4.30	.577		
	기타	3.71	.499		

*p<.05 **p<.01 ***p<.001

(1)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에 대한 분산분석

여기서는 경찰관의 개인적 특성별로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5개의 배경적 변수 가운데 학력과 관할구역을 제외하고 연

령, 계급, 총근속연수에서 집단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3). 연령의 경우는 연령이 많을수록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20~30세, 3.57; 30~40세, 3.64; 40~50세, 3.71; 50세 이상, 3.89). 계급의 경우에도 동일한 바, 하위직급인 순경(3.65), 경장(3.50)에 비해 상위직급인 경사(3.70), 경위이상(3.84)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경위이상의 직급이 시민지향적 경찰활동태도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총근속연수의 경우도 연령이나 계급과 마찬가지로 총근속연수가 오래된 경찰관일수록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5년미만이나 5년에서 10년미만의 경찰관의 경우 평균값이 각각 3.61, 3.62에 그치고 있으나 1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의 경우는 평균값이 3.74, 3.73, 3.8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근속기간이 긴 경찰관일수록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는 계급이 높고, 연령이 많고, 근속연수가 오래된 경찰관일수록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위이상인 경사이하의 경찰관들에 비해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 시민과의 협력에 대한 분산분석

구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연령	20세~30세	3.43	.745	4.191	.006**
	30세~40세	3.46	.947		
	40세~50세	3.57	.919		
	50세 이상	3.77	.963		
계급	순경	3.56	.403	6.015	.001**
	경장	3.20	.554		
	경사	3.61	.559		
	경위 이상	3.71	.561		
학력	고졸	3.53	.987	.474	.700
	전문대졸	3.72	.925		
	대학교졸	3.61	.920		
	대학원졸	3.69	.993		
근속연수	5년 미만	3.50	.699	1.473	.210
	5년~10년	3.42	.959		
	10년~15년	3.58	1.011		
	15년~20년	3.69	1.126		
	20년 이상	3.71	.945		
관할구역	일반주택 및 아파트	3.63	.936	.496	.779
	상가밀집 및 유흥가	3.55	.988		
	공장지대	4.00	.848		
	영세민주거	3.51	.900		
	농어촌지대	3.59	1.010		
	기타	3.71	.935		

(2) 시민과의 협력에 대한 분산분석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차원 중에서도 시민과의 협력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을 배경적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5개의 배경적 변수 가운데서 연령과 계급별로 집

단 간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는 연령이 많을수록 시민협력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20-30세, 3.43; 30-40세, 3.46; 40-50세, 3.57; 50세 이상, 3.77).

계급의 경우에도, 하위직급인 순경(3.56), 경장(3.20)에 비해 상위직급인 경사(3.61), 경위이상(3.71)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경찰계급이 높을수록 시민과의 협력에 기반한 협력치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시민에 대한 존중 및 응대에 대한 분산분석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 중 시민에 대한 존중 및 응대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은 연령, 계급, 근속연수 별로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5). 연령의 경우는 연령이 많을수록 시민에 대한 존중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20-30세, 3.38; 30-40세, 3.37; 40-50세, 3.45; 50세 이상, 3.73). 계급의 경우에도, 하위직급인 순경(3.47), 경장(3.30)에 비해 상위직급인 경위이상(3.65)의 직급이 시민에 대한 존중 태도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근속연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속연수가 많을수록 시민에 대한 존중 및 응대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령이 많거나 근속연수가 길거나 계급이 높은 경찰관일수록 지금까지 경찰현장 경험도 많고 대인관계 지식이나 경험(know-how)이 많기 때문에 경찰대상자에 대한 대응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 시민에 대한 존중 및 응대에 대한 분산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연령	20세~30세	3.38	.815	6.111	.000***
	30세~40세	3.37	.890		
	40세~50세	3.45	1.039		
	50세 이상	3.73	.927		
계급	순경	3.47	.572	4.908	.002**
	경장	3.30	.744		
	경사	3.35	.686		
	경위 이상	3.65	.761		
학력	고졸	3.51	.708	.308	.819
	전문대졸	3.59	.869		
	대학교졸	3.51	.713		
	대학원졸	3.64	.875		
근속연수	5년 미만	3.37	.588	3.928	.004**
	5년~10년	3.35	.729		
	10년~15년	3.47	.872		
	15년~20년	3.46	.675		
	20년 이상	3.69	.739		
관할구역	일반주택 및 아파트	3.53	.775	.859	.509
	상가밀집 및 유흥가	3.52	.645		
	공장지대	3.90	.518		
	영세민주거	3.52	.731		
	농어촌지대	4.25	.500		
	기타	3.49	.776		

(4) 의사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분산분석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 중 의사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은 대체로 평균값이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시민에 대한 경찰처분 등은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사고를 처리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잘 청취하거나, 당사자 권리에 대하여 충분한 고지를 해 주거나, 단속·검문 시 내용 및 절차 등을 당사자에게 잘 설명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의 배경적 변수별로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표 6).

〈표 6〉 의사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연령	20세~30세	4.00	.471	2.555	.055
	30세~40세	4.24	.51		
	40세~50세	4.22	.530		
	50세 이상	4.28	.553		
계급	순경	4.06	.443	2.092	.101
	경장	4.18	.531		
	경사	4.28	.523		
	경위 이상	4.26	.547		
학력	고졸	4.19	.532	.286	.835
	전문대졸	4.27	.552		
	대학교졸	4.23	.514		
	대학원졸	4.26	.666		
근속연수	5년 미만	4.07	.451	2.148	.074
	5년~10년	4.24	.511		
	10년~15년	4.34	.552		
	15년~20년	4.15	.539		
	20년 이상	4.26	.553		
관할구역	일반주택 및 아파트	4.21	.571	1.099	.361
	상가밀집 및 유흥가	4.24	.457		
	공장지대	4.53	.506		
	영세민주거	4.30	.561		
	농어촌지대	4.67	.333		
	기타	4.16	.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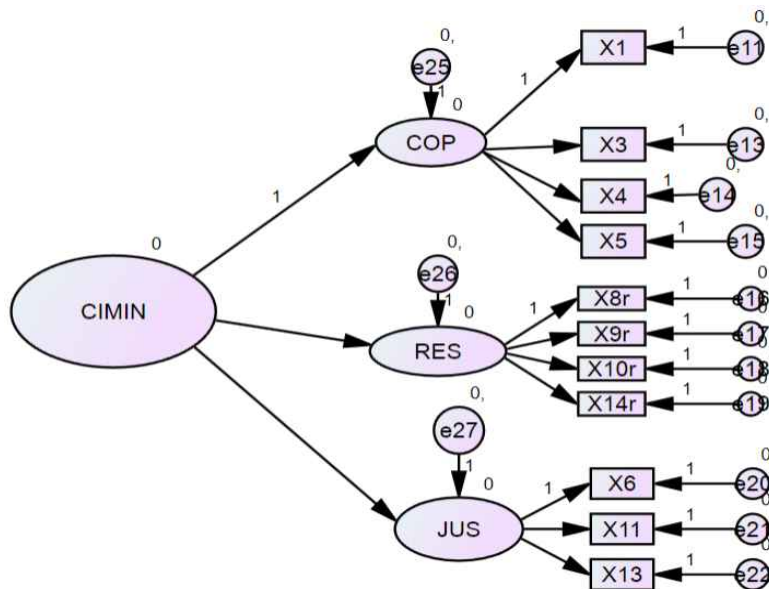
3) 구조적 인과관계분석

(1)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 자기정당성 및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분석

하는 것이 연구목적 중의 하나이다. 먼저 시민지향적 경찰활동(Citizen-Oriented Policing: COP) 개념의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의 개념은 아직까지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구성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측정모형의 타당도 및 적합도 검증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에서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개념의 하위차원으로서 경찰의 시민과의 협력, 시민에 대한 존중·처우, 경찰처분 의사결정의 공정성의 3가지 차원을 제시하였는 바, 이러한 요인들이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의 개념을 잘 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차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3).

〈그림 3〉 시민지향적 경찰활동태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CIMIN: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 COP: 시민과의 협력, RES: 시민에 대한 존중및처우, JUS: 의사결정 공정성

종속변수인 시민지향적 경찰활동태도 측정모형에 있어서 각 측정변수의 타당도를 살펴보면, 1차 요인에서 측정변수에 이르는 경로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비표준화 회귀 계수 값의 C.R. 값을 살펴보면 모두 $p < .001$ 기준에서 1.96보다 높게 나타나 각 변수의 타당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 다만 2차 요인을 설명하는 세 가지 1차 요인들 중에서 시민과의 협력(COP)이 표준화계수가 0.414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의 고차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 적합도는 $\chi^2=109.999$, $df=41$, $p=0.000$, $CMIN/df=2.683$, $RMR=.041$, $AGFI=.918$, $GFI=.949$, $TLI=.951$, $CFI=.963$, $NFI=.943$, $RMSEA=.067$ 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측정모델의 모수추정치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C.R.	P
JUS	<---	CIMIN	0.836	0.686	0.206	4.062	***
RES	<---	CIMIN	1.361	0.655	0.312	4.359	***
COP	<---	CIMIN	1	0.414			
X6	<---	JUS	1	0.66			
X11	<---	JUS	1.257	0.814	0.099	12.692	***
X13	<---	JUS	1.299	0.875	0.102	12.772	***
X8r	<---	RES	1	0.801			
X9r	<---	RES	0.86	0.531	0.096	9.001	***
X10r	<---	RES	1.044	0.733	0.091	11.475	***
X14r	<---	RES	0.701	0.515	0.08	8.735	***
X3	<---	COP	1.141	0.86	0.068	16.906	***
X4	<---	COP	1.115	0.885	0.064	17.399	***
x5	<---	COP	1.171	0.865	0.069	17.011	***
x1	<---	COP	1	0.749			

CIMIN: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 COP: 시민과의 협력, RES: 시민에 대한 존중및처우, JUS: 의사결정 공정성

그리고 사회적 지지, 자기정당성, 및 시민지향적 경찰활동태도 전체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 바, 먼저 각 측정변수의 타당도는 〈그림 4〉와 같다. 사회적 지지, 자기정당성,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의 각 경로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성 검증에 이어서 사회적 지지, 자기정당성,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주요 적합도 지수의 값이 $\chi^2=286.704$, $p=0.000$, TLI=.932, CFI=.943 RMSEA=.057 등으로 나타나서 모델의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모형적합도

χ^2	df	CMIN/df	p	GFI	AGFI	RMSEA	NFI	TLI	CFI
286.704	129	2.223	.000	.917	.890	.057	.902	.932	.943

다음으로는 구조방정식 모델에 의한 경로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각 변수들 간의 관계와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표 9〉에서 사회적 지지는 자기정당성과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정당성도 사회적 지지 및 시민지향적 경찰활동태도와 정(+)의 관계로 나타나 가설에서 제시한 변수들 간의 방향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시민지향적 경찰활동태도는 사회적 지지가 클수록 그리고 자기정당성이 높을수록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클수록 경찰관의 자기정당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표 9〉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사회적지지	자기정당성	시민지향적경찰
사회적지지	1	.319**	.163**
자기정당성	.319**	1	.278**
시민지향적경찰	.163**	.278**	1

*p<.05 **p<.01 ***p<.001

(2)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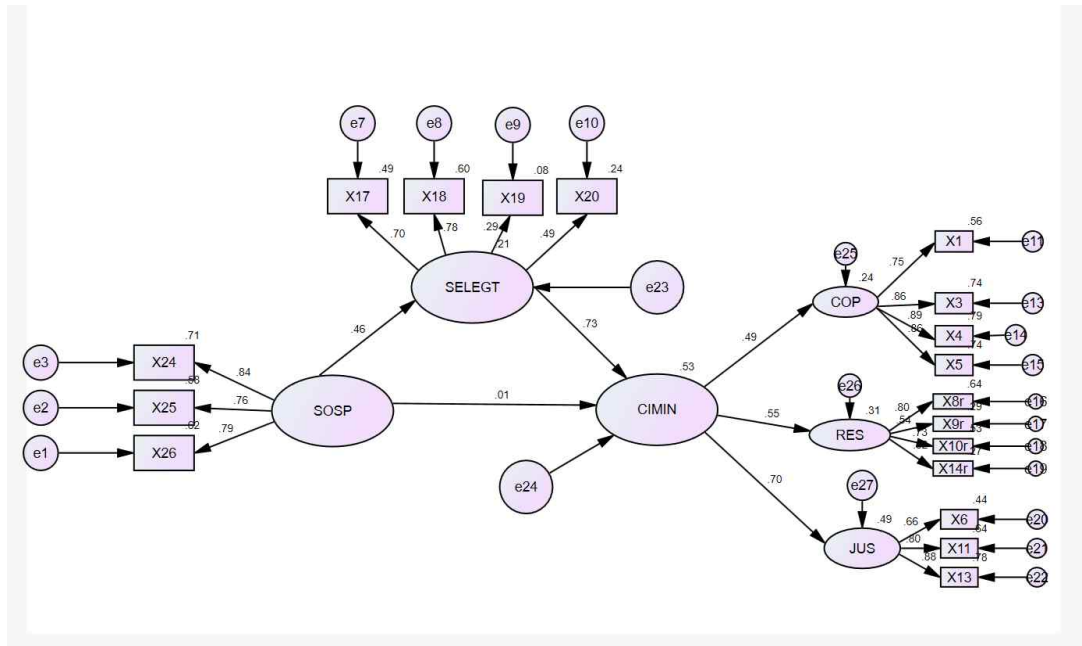
본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사회적 지지는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는 표준화계수가 .46으로(S.E .066, C.R.6.578) 자기정당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기정당성은 표준화계수가 .725로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결론적으로, 사회적 지지, 자기정당성 및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간의 구조적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서 볼 때, 사회적 지지는 직접적으로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³⁾ 반면 사회적 지지는 자기정당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후자의 결과는 경찰이 시민들의 사회적 지지(public support)를 얻고 있다고 믿을 때, 자기정당성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민주적 경찰활동 태도를 보인다는 Bradford & Quinton(2014:103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정당성은 사회적 지지와는 달리 표준화 계수가 0.725로 나타나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종속변수인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은 외부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라기 보다는 내부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 자신의 내면적인 자기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3)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술한 Kang & Nalla(2011)의 연구결과 및 Janathan-Zamir & Harpaz(2018)의 연구결과와는 서로 상이하다. 그러나 각 연구들의 조사설계 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양자 간의 상관관계 계수(.163)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데서 일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고 본다(표9).

〈그림 4〉 시민지향적 경찰활동태도의 경로분석 결과



CIMIN: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 COP: 시민과의 협력, RES: 시민에 대한 존중및처우, JUS: 의사결정 공정성
SELEGT: 자기정당성 SOSP: 사회적지지

〈표 10〉 시민지향적 경찰활동태도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Estimate (비표준화계수)	Estimate (표준화계수)	S.E.	C.R.	P
SELEGT (자기정당성)	<--- SOSP (사회적지지)	0.436	0.46	0.066	6.578	***
CIMIN (시민지향적태도)	<--- SOSP (사회적지지)	0.005	0.01	0.046	0.119	0.905
CIMIN (시민지향적태도)	<--- SELEGT (자기정당성)	0.432	0.725	0.079	5.46	***
JUS (의사결정)	<--- CIMIN (시민지향적태도)	0.723	0.701	0.129	5.626	***
RES (존중처우)	<--- CIMIN (시민지향적태도)	0.964	0.553	0.179	5.382	***
COP (시민협력)	<--- CIMIN (시민지향적태도)	1	0.491			

(3)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자기정당성의 매개효과 분석

다음으로는 사회적 지지와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와의 관계에서 자기정당성이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정당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서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1〉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자기정당성의 매개효과 분석

경로	Estimate (매개효과추정치)	S.E. (표준오차)	95%신뢰구간
사회적지지→자기정당성→시민지향적 경찰	.188	.057	.096~.327

사회적 지지와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정당성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95% 신뢰구간에서 0.096~0.327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보이고 있어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정당성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p < .001$). 사회적 지지와 자기정당성 및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자기정당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으로써 삼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정당성은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다른 선행연구 결과(Bradford & Quinton, 2014)와는 상이한 결과로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정당성 및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회적 지지가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정당성의 매개효과 검증에 이어서 사회적 지지, 자기정당성,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 간의 총효과 및 직·간접효과를 분석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시민지향적 경찰활동태도에 대한 사회적지지와 자기정당성의 직·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사회적지지→시민지향적 경찰활동	.343	.010	.333
사회적지지→자기정당성	.460	.460	-
자기정당성→시민지향적 경찰활동	.725	.725	.000

여기서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에 대한 총효과는 1.058(.725+.333)인 바, 자기정당성의 직접효과가 .725이고, 사회적 지지의 간접효과는 0.333으로 나타났다(표 12). 이러한 결과는 경찰관의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에는 사회적 지지보다는 경찰관의 자기정당성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네가지 가설 중 〈가설1〉은 기각되었고, 나머지 〈가설2〉, 〈가설3〉, 〈가설4〉는 채택되었다.

2. 분석결과의 논의

본 연구는 경찰의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를 평가하고, 그 영향요인을 사회적 지지와 자기정당성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변수간의 구조적 인과관계 분석을 시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개념은 아직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의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차원으로서 시민과

의 협력, 시민에 대한 존중 및 응대, 의사결정의 공정성의 3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개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 및 적합도 분석을 실시한 바, 측정모형이 타당하고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구성개념의 3가지 하위차원 중에서는 의사결정 공정성(4.228)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시민과의 협력의 중요성(3.606), 시민에 대한 존중 및 응대(3.52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경찰은 경찰처분 결정에 있어서 중립성 내지는 공정성은 지켜져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과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은 평균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는 있으나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범죄예방 및 퇴치를 위한 치안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동네지향적 경찰활동(Neighborhood Policing) 등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이념을 더욱 더 확산할 필요가 있다(Olive, Willard M, 1998:75). 시민존중 및 응대는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지역경찰활동에 있어서 경찰대응성(patrol officers' responsiveness)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강구가 필요한 상황이다(Tasdooven, H., 2011).

전반적으로 볼 때,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는 연령이 많고, 계급이 높고, 근무연한이 오래된 경찰관일수록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에 보다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늘날 치안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실제 경찰관들의 시민에 대한 협력태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과의 접촉과정(public encounter)에서 경찰의 응대태도가 경찰에 대한 신뢰 및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앞으로 특히 경사이하의 경찰관들의 태도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경찰대상자(the policed)에 대한 처분 및 결정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계급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에 대한 구조적 인과관계 분석에서는 자기정당성이 시민지향적 경찰활동태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에 사회적 지지는 자기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는 자기정당성 및 민주적 경찰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Bradford와 Quinton(2014)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개념 측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지역경찰활동이 수행되는 나라의 정치·사회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종속변수인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자기정당성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기정당성이 완전 매개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 점은 앞으로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자기정당성의 수준 제고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이상에서 본 연구는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의 개념을 시민과의 협력, 시민에 대한 존중 및 응대,

경찰의사결정의 공정성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고 이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과 태도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경찰관의 자기정당성 및 개인적 배경변수를 선정하였고, 이들 변수들 사이의 상호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등을 활용하였다.

경찰관들의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태도는 5점 척도에서 3.75로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만한 정도까지는 못 미치고 있다. 비교적 연령이 많고, 계급이 높고, 근무연수가 오래된 경찰관일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구조방정식모형에 의한 변수들 간의 경로분석에서, 사회적 지지는 자기정당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찰관의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정당성은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에 β 값이 0.73으로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회적 지지와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사이에서는 완전매개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변수로서 사회적 지지가 시민지향적 경찰활동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에, 심리적 자본(psychological capital)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정당성은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는 바,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외부적 변수로서 사회적 지지가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자기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쳐 종속변수인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결과를 고려한다면, 외부환경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경찰관의 자기정당성은 시민지향적 경찰활동 태도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의 정착을 위해서는 경찰관의 자기정당성 강화를 위한 인사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기정당성은 이미 자아효능감의 증진 내지는 조직효과성 등을 향상시켜 준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인사관리를 통해 경찰관들이 높은 수준의 자기정당성을 가지게 된다면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의 정착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긍정적인 조직성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자기정당성은 3.63으로서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으나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정당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방안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가은외(2020). 절차적 정의에 기반한 경찰활동의 국내적용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2권 6호, 231-258.
- 박경래.(2006). 일선경찰의 시민지향성 개념구성과 영향요인 분석. 「행정논총」, 44(2):113-148.

- 윤현석.(2017). 경찰공무원의 사회적 지지와 직무열정과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치안 정책연구」, 31(3):311-350.
- 임창호.(2019). 신뢰받는 공동체 치안활동의 활성화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77 호:377-408.
- 임창호.(2020). 시민의 법률준수 및 경찰협력에의 영향요인: 경찰 정당성 이론을 중심으로. 「경찰학 연구」, 제20권 제1호:165-199.
- 이영섭.(2017). 경찰 정당성 이론에 대한 분석. 「경찰학연구」. 17(4):95-125.
- 장재성·최낙범.(2021). 절차적 정의와 행정대응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일선경찰관의 재량권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5(4):163-199.
- 조우봉·김종범.(2021). 지방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직시민행동(OCB)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5(1):97-122.
- 허용훈.(2003). 우리나라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실태와 정책과제. 「지방정부연구」, 7(3): 63-64.
- 허용훈·문유석.(2014).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주민협조의 실태와 영향요인: 경찰관의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4): 143-163.
- 허용훈·문유석.(2018). 주민의 사회적 지지가 지역사회경찰활동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22(1):45-68.
- 허용훈·문유석.(2021). 사회적 지지와 자아효능감이 경찰관의 적극적 경찰활동 태도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25(2):179-206.
-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1994). *Understanding Community Policing: A Framework for Ac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
- Bottoms, A. and Tankebe, J. (2013), "A voice within': powerholders' perspectives on authority and legitimacy", in Tankebe, J. and Liebling, A. (Eds), *Legitimacy and Criminal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pp. 60-82.
- Bradford, B. & Quinton. P. (2014) Self-Legitimacy, police culture and support for Democratic policing in an England Constabular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4(6):1023-1046.
- Chen Fei-Lin et al. (2012). Does officer self-legitimacy mediate the linkage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procedural justice? Evidence from Taiwanese police officers.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44(5):893-908.
- Craen, Maarten Van, and Skongan, Wesley G.(2017) Achieving Fairness in Policing: The Link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Procedural Justice. *Police Quarterly*, 20(1):3-23.
- Cubas,et.al. (2021). Predictors of Self-legitimacy among Military police officers in Sao Paulo, Brazil.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44(6): 1140-1153.
- Hacin, R. and Meško, G. (2022), "Self-legitimacy of police officers in Slovenia",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45 No. 5, pp. 693-706.
- Jackson, Arrick L. & Wade, John E. (2005). Police perception of social capital and sense of responsibility: An explanation of proactive policing.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28(1): 49-67.
- Jonathan-Zamir, T., & Harpaz, A. (2018). Predicting support for procedurally just treatment:

- The case of the Israel National Polic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5(6), 840-862.
- Kang and Nalla. (2011). Perceived citizen cooperation, police operational philosophy, and job satisfaction on support for civilian oversight of the police in South Korea. *Asian J. Criminol.*, 6 (2011), pp. 177-189.
- Oliver, W.M.(1998). *Community Oriented Policing*. Prentice-Hall, Inc.
- Pino, Nathan W. (2001). Community Poling and Social Capital.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24(2): 200-215.
- Scott, Jason D. (2002).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Community Coproduction and Neighborhood-Level Social Capital.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18(2): 147-166.
- Tankebe, J. (2019), "In their own eyes: an empirical examination of police self-legitimac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and Applied Criminal Justice*, Vol. 43 No. 2, pp. 99-116.
- Tankebe, J. and Meško, G. (2015), "Police self-legitimacy, use of force, and pro-organizational behavior in Slovenia", in Meško, G. and Tankebe, J. (Eds), *Trust and Legitimacy in Criminal Justice: European Perspectives*, Springer, Cham, pp. 261-278.
- Tasdovent, H.(2011). Perseonal Perception and Organizational Factors Influencing Police Discretion: The Case of Turkish Patol Oficer.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Doctoral Dissertation*.
-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18). *Proactive Policing: Effects on Crime and Communities*,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Washington, D.C.
- Tyler, T. R., Goff, P. A. & MacCoun, R.J.(2015) The Impact of Psychological Science on Policing in the United States: Procedural Justice, Legitimacy, and Effective Law Enforcement, *Psychological Science in Public Interest*, 16(3):75-109.

김한규(金漢奎): 현재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사)한국산림행정학회 사무국장으로서 재직 중이다. 주요 학문적 관심분야는 도시공공서비스론, 경찰행정론, 사회복지정책론 등이다. 논문으로는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21) 등이 있다.(hangyu1114@daum.net)

허용훈(許勇勳): 현재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학문적 관심분야는 정책평가, 경찰행정, 복지정책 등이며 논문으로는 우리나라 지역경찰활동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지역경찰제도에 대한 경찰관의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yhhuh@pknu.ac.kr)

Abstract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Legitimacy on Citizen-Oriented Policing

Kim, Han-Gyu

Huh, Yong-Hoon

The research problem of this study can be presented in three main ways, and first, it analyzes how police officers perceive and evaluate citizen-oriented policing in local policing.

Second, we will theoretically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police officers' citizen-oriented policing attitude in local policing, and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and self-legitimacy, and citizen-oriented policing. In particular, it is intended to verify whether self-legitimacy has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s' social support toward police and citizen-oriented policing attitude.

Third,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I would like to propose a policy alternatives to further strengthen the citizen-oriented attitude of police officers in local policing.

In order to analyze this research problem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police officers of the B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d based on this, structural causal analysis between citizen-oriented policing and influencing factors was performed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Key Words: Citizen-Oriented Policing, Social Support, Self-Legitimacy, Police Legitimacy, Community Policing, Local Policing